

현대 여성구두의 조형적 특성 - 1990년대를 중심으로 -

차 은 진[†]

동신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Formative Features of Modern Women's Shoes - Focused on 1990's -

Eun-Jin Cha[†]

Dept. of Fashion Design, Dongshin University

(2006. 10. 13. 접수/2006. 11. 18.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ormative features of women shoes, to develop distinctive shoes design for coming fashion trend. the methods of this study are documentary research and case study. In the theoretical study, this study has caught the origin of shoes and the changes of shoes design of each era. for the study of formative features of women shoes in 1990's, 215 kinds of pictures have been selected from in professional shoes magazines.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 Woman shoes categorized the design factors into shape, material, decoration. Reformational shape that reconstructs old shape of shoes by comtemporany aesthetic, shape in that dual images were mixed, re-created shape that was constructed through the reconstruction of structures and shapes of shoes. Material image was strengthened by varying patterns of unburned calf, leopard and zebra. Avant-garde was appeared by using naturalistic material to represent natural beauty or using merry, daring material. Post-modern tendency was appeared like using brassiere strap instead of back strap or using round string in elegant shoes.

Key words: Women shoes(여성구두), Formative factor(조형요소), Formative features(조형적 특성)

I. 서 론

현대구두는 초기 착용목적인 기능성과 실용성보다는 심미성이 강조되어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구두디자인의 개발이 필요해지고 있다. 구두의 구조와 제법의 발달은 구두의 조형방법을 다양화시켜 구두디자인을 패션의 한 분야로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 구두디자인은 작가의 창의적인 발상과 형태, 소재, 색채, 장식 등의 조형방법에 따라 다르게 인지될 수 있어 차별화 된 조형방법은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여 구매로 이르는 지름길이 되게 한다. 현재까지 구두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한국에서의 서양구두 도입과 시대별 발달사를 연구한 장선애(1976)¹⁾의 한국 근대 여자 양화에 관한 연구와 서양구두의 발생과 변천을 연구한 구인숙(1980)²⁾의 고대서양 신발에 관한 연구, 김선화(1986)³⁾의 서양복식에 나타난 신의 역사적 고찰, 최유화(1991)⁴⁾의 서양신발의 유형별 발달과정에 관한 고찰 등 구두의 시대별 변천을 연구한 것들과 구두 디자인의 소비자 선호도와 적합성을 연구한 김현희(1986)⁵⁾의 여성용 구두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여혜린(1994)⁶⁾의 성인여자구두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구두의 변천사

[†]Corresponding author: Eun-Jin Cha

E-mail: shoesjin@hananet.net

연구나 소비자의 선호도와 만족도를 조사하는 소비자 행동 중심의 연구들이 많았다. 구두 디자인 분야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앞으로의 구두 디자인 개발에 도움이 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두의 조형적 특성을 살펴 구두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시키고 나아가 구두가 단순히 의상연출 시 필요한 일개의 품목이 아닌 패션의 주된 주자로 그 주체성을 확인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구두에 대한 정확한 기초지식 습득을 위해 구두의 기원과 변천사를 문헌적인 연구로 고찰하고 구두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구두의 구조와 제법을 서적과 실물관찰로 알아보았으며 최근 구두의 조형적 특성을 밝히기 위해 1990년대 발간된 구두전문서적 ARS와 Accessory Collegioni를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하였다. 215점의 사진을 선별하여 구두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구두전문인 2인의 검증을 통해 사진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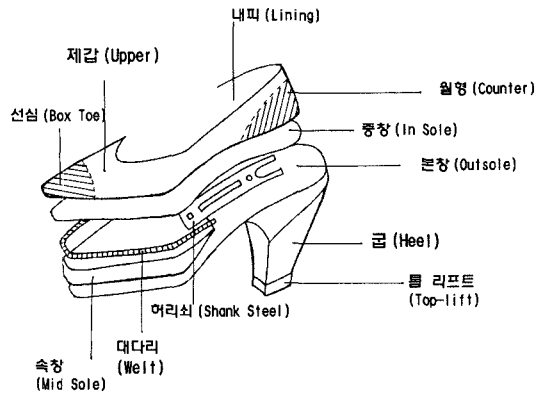
II. 구두의 제법과 구조

구두의 구조는 구두의 용도와 구두의 제법 그리고 구두의 성별과 샌들, 부츠 등 구두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샌들은 고대부터 구두의 바닥에 해당하는 창과 구두의 윗부분에 해당하는 제갑 부분이 분리된 상태였고, 구두는 발싸개 형태의 신발에서 로마시대에 처음으로 바닥과 윗부분이 분리된 형태로 된다. 샌들이 창과 제갑으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두를 제갑과 창이 분리된 형태로 제작하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창이 현재와 같은 증창과 본창인 두 개로 구분된 시기는 턴 워크 기법에서 발전된 턴 웰트(Turn-Welt)라는 구두제법이 15세기에 고안되어 가능하게 된다⁷⁾.

구두의 제법은 19세기까지도 실을 이용하여 손으로 꿰매는 것이 전부였는데 접착제로 제갑과 창을 접합시키는 방법인 시멘트(Cement)제법이 1926년 처음 소개되어 제작의 용이성과 편리성으로 주요한 구두 제작 방법이 되었다. 그 외의 구두제법으로는 신사화에 많이 쓰이는 실로 봉합하는 굿이어 웰트(Goodyear Welt)제법⁸⁾과 과거 모카신의 제법을 응용한 모카신 제법, 제갑이 증창 안으로 감싸지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노출



<Fig. 1> 현대 여성구두의 구조

되어서 본창과 꿰매지는 방법인 스티치다운(Stitch down)제법이 있다. 굿이어 웰트 제법은 기계를 이용한 구두의 제법의 시초이다. 또한 특수화나 운동화 제작 시 사용되었던 창과 굵이 일체형으로 몰드화 되어 제작되는 인젝션 몰드(Injection Mold) 제법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구두의 제작 방법 중 여자구두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시멘트 제법을 중심으로 여자구두의 구조<Fig. 1>를 살펴보았다.

III. 구두의 기원과 변천

1. 구두의 기원

인간이 언제부터 신발을 착용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Francois Boucher⁹⁾는 원시인이 사냥 할 때 처음으로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죽을 사용했을 것이며, 그것은 단순한 뼈바늘이나 돛바늘 수준의 도구를 사용하여 제작한 원시적인 신발로 그 기원을 빙하시대 말기로 보고 있다. 그 형태는 몽골민족이 14,000년 전부터 착용하여 아메리카 인디언에게 전해진 신발의 형태인 모카신(Moccasin)과 유사하다고 했다. 신발¹⁰⁾의 바닥과 위가 분리된 형태는 1991년 프랑스 알프스에서 발견된 'Ice Man'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신고 있었다. 이 신발은 B.C 3000~3300년경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위는 식물 섬유로 짜여져 있었고 바닥은 곰의 생가죽으로 되어 있었다¹¹⁾.

이상과 같이 신발의 기원은 의복의 연장개념인 발주머니 형과 샌들로 보인다. 그 후 이집트나 그리스, 로마 등 남방계에서는 샌들과 같은 개방형의 신발이

발달을 하고, 북방계의 추운 지방에서는 발주머니형인 모카신이 발달하게 되어 지금의 구두와 같은 형태가 된 것으로 보인다.

2. 구두의 변천

이집트는 샌들을 주종으로 남녀성별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샌들이 모든 계층에서 착용된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일반인은 맨발이었고, 승려와 귀족 등 특수직업의 사람들만이 신었다¹²⁾.

고대 그리스도 처음에는 맨발이 많았으나 후대에는 모든 계층에서 구두, 부츠, 샌들 등 모든 종류의 신발을 신었다. 그리스 샌들의 형태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고, 이집트의 것보다 훨씬 정교했으며 매우 다양한 방법의 잠금장치가 있었다.

로마의 제화기술과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무두질 기술은 뛰어났으며, 복식으로 사회적 신분을 나타냈던 로마는 신분이나 직업, 성별에 따라서 구두의 형태와 재료에 차이가 있었다. 그리스인들이 샌들 스타일을 많이 신은 반면 로마인들은 대부분 구두 스타일인 칼세우스(Calceus)를 많이 착용하였다. 남녀 신발의 형태적 차이는 없었다.

12세기까지 가장 일반적인 구두 스타일은 발목아래에서 한번 또는 두 번 잡아 당겨서 묶는 앵글부츠 스타일이었고, 14세기 중반부터 단화(短靴)형 구두가 더 많이 착용된다. 1360년대 초에 나타나기 시작한 극도로 얇아 뾰족한 구두인 빨렌(poland)은 그 길이가 45 cm 혹은 그 이상이 되는 것도 있었다. 중세말기에는 패튼(Patten)이라는 새로운 구두 형태가 출현을 한다. 패튼은 진흙이나 눈으로부터 구두를 보호하기 위하여 착용한 덧신(overshoes)으로 창은 높은 플랫폼 형태였고, 위는 앞과 뒤가 오픈 된 형태였다. 15세기에는 베네치아의 여성들이 터키식 패튼을 개조해서 창이 높은 쇼핀(Chopin)이라는 구두를 신기 시작했는데 이 구두는 스페인, 프랑스, 영국까지 전파되어 전 유럽에 유행된다¹³⁾. 15세기에 남성이 빨렌의 구두코 길이로 지위와 부를 상징하였다면 16세기에 여성은 쇼핀의 높이로 지위와 부를 나타냈다. 1533년 피렌체의 명문 메디치가 출신인 Catherine de Medici가 창의 연장이 아니라 굽이 부착된 구두를 처음으로 소개하게 된다. 16세기에는 코 모양이 둥근 구두가 나타났는데 코 모양이 오리 부리 같다고 하여 덕크빌(Duck bill) 코라고 불렀다. 덕크빌 구두는 너비가 너무 넓어서 12인치이상 되는 것도 있었다. 이 구두에

는 의상에서 유행한 장식법인 슬래쉬(Slash)가 사용되어 의상과 조화를 이루었다. 17세기에는 구두에 버클이 앞장식용으로 사용되었고 리본이나 로제트(Rosette, 장미)형태가 부착되기 시작하였다. 남성의 것은 과시의 의미로 굉장히 크고 화려했고 여성의 것은 보통의 크기였다. 1665년경에는 구두에 버클이나 버튼, 끈 등의 잠금장치가 없는 구두인 펌프스(Pump)가 출현을 하였다¹⁴⁾. 17세기 후반부터 남녀구두에 형태적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남성은 주로 중간 굽 높이의 스퀘어 코 구두를 착용하였고, 여성은 높고 가는 굽의 포인트 코 구두를 주로 착용하였다. 구두의 색상과 소재도 차별되기 시작했다. 18세기는 포인트 코가 아주 뾰족해져서 바늘(Needle)코라고 불렀고 구두의 위가 뾰족하고 퀴터로 분리되지 않은 펌프스 형태의 구두가 많이 착용되었다. 또한 1770년경부터 이전의 길고, 포인트한 코 모양 외에 얇고 약간 둥근 코 형태도 나타났다. 18세기는 굽의 형태가 모래시계의 곡선을 이루었다. 이 굽은 루이 15세의 애인 Pompadour가 신기 시작하여 유행되었고 루이 15세의 이름을 따서 루이(Louis) 15세 굽이라고 불렀다¹⁵⁾.

19세기 초의 목과 어깨를 많이 드러낸 발목길이의 나이트 드레스인 Decollete가 유행을 하면서 구두도 새틴 소재의 낮고, 굽이 거의 없는 단순한 형태로 되었다. 18세기의 과장된 우아함과 비교해서 이 시기의 구두는 연약함과 섬세함으로 여성성을 보여주었다.

20세기는 구두 디자이너들의 활약으로 구두가 디자인 영역으로서 새롭게 인식되는 시기였다. Andre Perugia는 T-스트랩¹⁶⁾과 Bar-스트랩¹⁷⁾ 구두를 창안했고 Elsa Schiaparelli를 위한 초현실주의 의상에 어울리는 구두도 디자인해 주었고 Paul Poiret와도 작업을 하였다. 1936년 Salvatore Ferragamo는 금박을 입힌 유리 모자이크로 장식된 플랫폼 창 샌들을 만들었고 1938년에는 모조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양각 황동의 격자무늬 플랫폼 창 구두를 디자인 했다.

1947년에는 Christian Dior의 뉴 룩과 함께 Roger Vivier가 제안한 스틸레토(Stiletto)¹⁸⁾ 굽이 유행하였고 스페이스 룩(Space-Look)이 유행을 하면서 1964년 Herbert Levine은 Andre Courreges의 스페이스 룩을 위해 플라스틱으로 구두를 만들어주었다.

1970년대에는 1940년대 플랫폼 웨지 구두를 리바이벌한 구두가 유행을 하는데 구두 형태에 있어 굽이 중요시 되었다. 1980년대는 이태리의 Gucci, 프랑스의 Charles Jourdan, 스위스의 Bally등의 대형 구두 브랜드들과 더불어 구두 디자이너 Maud Frizon과

Manolo Blahnik, Stephane Kelian, Philippe Model, Patrick Cox 등이 구두디자인을 다양하게 선보였다.

IV. 1990년대 여성구두의 조형적 특성

Colin McDowell¹⁹⁾은 구두 디자인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구두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형태, 소재, 장식을 지목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구두 조형요소를 형태, 소재, 장식으로 구분하여 사례 연구를 통해 각 항목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1. 형태

구두의 형태에는 구두의 윗부분 모양인 제갑의 형태와 구두의 앞모양인 코형태 그리고 구두의 뒷모양을 결정하는 굽형태가 포함된다. 구두의 제갑 형태는 제갑의 높이로 구두와 부츠로 구분되고 발의 노출 정도에 따라서 샌들과 구두로 구분된다. 형태에 따라서는 발등에 띠가 있는 스트랩(Strap)과 여성구두의 기본 형태인 펌프스(Pumps) 앞은 막히고 뒤가 없는 뿔(Mule)등이 있다. 코형태는 앞이 뾰족한 모양의 포인트 코(Point toe), 앞이 뾰족하면서도 도톰한 코는 오벌 코(Oval toe), 각지고 네모난 스퀘어 코(square toe), 둥근 모양의 라운드 코(round toe), 투박한 모양의 블런티드 코(blunted toe)등이 있으며, 굽은 창과 굽이 부착되는 제작방법과 굽의 휘어진 모양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굽 형태가 일직선인 것은 큐반류로, 굽을 부착한 후 창을 부착하는 것은 프렌치와 웨지류로 분류할 수 있다. 프렌치와 웨지는 굽의 휘어진 모양이 일직선인 것은 웨지로 곡선인 것은 프렌치로 분류된다. 웨지 중에서 창과 굽이 함께 몰드화 된 것은 플랫폼폼 웨지굽으로 분류된다.

1) 복고적인 형태의 재현

복고적인 형태의 구두들은 한 시대의 것을 재현하 기보다는 여러 시대의 조형요소를 동시에 결합하는 이미지가 혼합되는 성향을 보였다. '98F/W에 선보인 Miumiu의 구두는 1960년대 사각 코의 스트랩 구두에 플레어드 된 큐반굽을 부착하여 중성적인 여성구두의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구두의 전반적인 이미지는 1960년대 스트랩 스타일인데 굽과 소재는 현대적인 느낌의 것을 조형하여 중성적인 이미지로 재구성되



<Fig. 2> '90 F/W Chanel, Accessory Collegioni

었다. 과거와 현대의 혼합된 이미지가 성 개념의 중성적인 이미지로 재탄생된 것이다. 정숙함이 돋보이는 로맨틱한 Chanel의 구두<Fig. 2>는 복고적인 구두의 형태로 우아하고 정숙한 여성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1990년대 복고적인 구두들은 과거 스타일의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과거시대의 이미지를 차용할 뿐 구두의 소재와 형태, 색채는 현대적인 요소로 재구성되었다. 과거의 이미지와 현대적인 조형요소가 조합하여 과거와 현대가 절충된 감각으로 표현되었다.

2) 이중적 이미지의 형태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 동양과 서양의 어울리지 않은 것 같은 이질적인 요소들이 혼합, 절충되어 나타났다. 다원적인 형태의 구두는 남성구두의 디테일 포인트가 되는 팁(tip)²⁰⁾과 스티치, 끈과 버클 등을 여성구두 디자인에 사용하여 양성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거나 남성구두 형태를 그대로 재현하여 성의 이중적 이미지를 나타냈다. 이러한 다원적인 형태의 구두는 성의 차이에 근거한 구두의 형태조형을 파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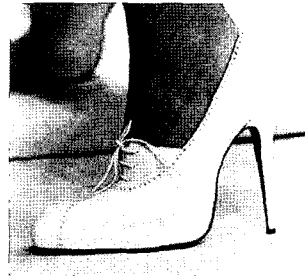
17세기 남성 부츠를 재현한 형태의 제갑에 높은 굽을 부착시키고 강렬한 색채로 여성성을 부여한 D&G



<Fig. 3> '99 F/W D&G, ARS



<Fig. 4> '95 F/W Gianfranco Ferre, Accessory Collegioni



<Fig. 6> '96 S/S Vivienne Westwood Accessory Collegioni



<Fig. 5> '96 S/S Jean-paul Gaultier, ARS



<Fig. 7> '95 F/W Gianfranco Ferre, Accessory Collegioni

의 부츠<Fig. 3>는 완벽한 여성과 남성의 이중적 이미지를 보여준다.

Gianfranco Ferre<Fig. 4>는 타이트하게 다리에 밀착되어 여성의 다리곡선을 강조한 부츠와는 달리 17세기 남화 부츠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이는 부츠의 통부분을 헐렁하게 하여 여성적인 요소와 비 여성적인 요소의 이질적인 결합을 통하여 포스트 페미니즘시대의 새롭게 제시되는 여성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Fig. 5>는 일본의 민속 신발인 게다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디자인한 것이다. 동서양의 이미지를 혼합하는 이중적 이미지의 구두는 동양의 민속적인 구두 형태를 현대적인 소재로 재연출하여 이질성을 추구하는 절충적인 형태로 아방가르드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문화적인 요소를 병치시킴으로써 구두 디자인에 충격적인 효과를 주었다.



<Fig. 8> '96 S/S Prada, Accessory Collegioni

3) 해체주의에 입각한 구두 이미지의 사고 전환

'95 S/S에 Vivienne Westwood가 선보인 구두<Fig. 6>는 구두의 구조학에 새로운 도전장을 낸 것이다. 기존의 플랫폼 구두의 구조에서 플랫폼을 창으로 간주하여 제갑을 제작한 후 덧붙이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이었는데 Vivienne Westwood는 플랫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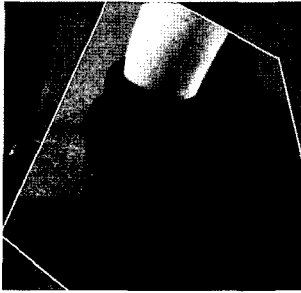
제갑을 완성하기 전에 제갑 안에 넣어 흔적을 감췄다.

플랫폼은 있으나 그 형태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의상과 인체사이의 공간을 해체시켜 재구성하는 의상의 해체주의적 개념이 도입된 구두를 보여준 것이다.

Gianfranco Ferre의 구두<Fig. 7>는 웰트를 부착한 두꺼운 창을 사용하여 제갑이 아닌 창을 강조하였다. 기존 구두에서 형태개발의 주변부였던 창이 형태인식의 중요한 것이 됨을 보여주었다. 해체주의에서의 탈구조주의에 입각한 탈중심, 탈구조의 개념이 구두에 나타난 것이다.

Prada의 1996 S/S의 구두<Fig. 8>는 벗겨진 것 같은 낡은 느낌으로 가죽을 가공하여 구두소재에 표현된 빈곤의 미학을 보여주었다.

<Fig. 9>은 양말을 재현한 구두로 기존의 옷에서



<Fig. 9> '98 F/W Casteljajac, ARS



<Fig. 10> '99 F/W D&G, ARS

하부구조로 비가시적인 도구였던 양말이 가시적인 도구인 구두로 재탄생되어 의상에서의 속옷을 겉옷화하는 T.P.O의 해체적인 개념이 나타났다.

이러한 구두의 형태들은 구두의 구조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 즉 구두를 구성하는 각 조형요소간의 비례와 보편적인 균형을 파괴시킴으로써 구두의 표준적이고 이상적인 형태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한다.

2. 소 재

구두소재는 재원에 따라서 가죽, 합성, 천 등으로 분류 될 수 있는데 가죽은 동물의 종류, 연령, 산지 또는 살생시기 등 여러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1990년대 여성구두 소재의 특징은 질감의 강화와 다양한 소재의 활용이 두드러졌다.

1) 질감의 강화

일반가죽보다 강한 질감을 주는 도마뱀, 뱀, 송치, 등 독특한 질감의 특수피가 증가되었다. 질감강화를 위해 기존의 특수피에서 기대되는 부유한 이미지의 뱀, 도마뱀, 악어가죽 등이 사용되었고 또한 재큐어 무늬나 얼룩말 무늬, 표범무늬 등이 강렬한 색채대비로 사용되어 저속함과 고상함의 양면 가치를 동시에 표출하였다.

2) 다양한 소재의 활용

구두소재로 많이 사용되는 가죽 외에 천 소재와 합성소재의 활용이 많았다. 천소재는 새틴이나 캔버스 천류가 많았고 구두에 많이 사용되지 않았던 펠트나 모직, 체크 등의 천연의 소재들이 새롭게 나타났다.

자연 친화적인 소재의 사용으로 외부의 물리적인 힘에 의한 인공적인 미를 추구하기보다는 인간 본연의 인본주의적인 자연미가 부각되었다.

합성소재<Fig. 10>는 홀로그램을 표현한 미래적인 느낌의 소재가 나타났다. 합성소재의 딱딱하고 뻣뻣한 느낌보다는 인간 피부를 모방한 유연하고 부드러운 소재로 표현되어 인간의 몸을 기초로 곡선과 직선의 조화로 나타난다. 이러한 신소재들의 활용은 현대과학의 리얼리티를 환상적으로 지각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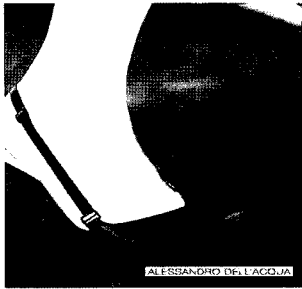
3. 장 식

Herbert Read²¹⁾의 응용장식의 유형 분류 기준을 근거로 구두에 기능적이고 도구적인 의미로 사용된 기본적인 형태의 버클, 끈, 지퍼 등은 기하학적 장식으로 분류 할 수 있고, 연속적인 반복으로 장식적인 효과를 주는 편칭, 아일렛, 비즈 등은 유기적인 장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순수히 장식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리본이나 로제트 등은 조형적 장식으로 분류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식들은 혼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1) 무장식성

장식 없이 기본적인 조형요소인 형태, 소재, 색채로 디자인의 변화를 주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장식대신 다양하고 신선한 신소재의 적극적인 활용이 증가하였고 색채도 과감한 색과 다양한 배색으로 장식을 대신하는 디자인 요소로 주목되었다. 가장 기본적인 기능적인 장식 외에는 순수 장식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장식은 배제되었다.

2) 장식의 다양성



<Fig. 11> '98 F/W Alessandro Dell'Acqua, ARS

<표 1> 1990년대 여성구두의 조형적 특성

조형 요소	여성구두의 조형적 특성
형태	복고적 형태의 재현
	이중적 이미지
	해체주의에 입각한 구두이미지의 사고전환
소재	질감의 강화
	다양한 소재의 활용
장식	무장식성
	장식의 다양성

바로크 시대의 로제트 보우를 부착시켜 복고적인 구두를 보여주었고 수공예적인 비드나 자수로 과거 여성구두의 화려함을 떠올리게 하는 구두도 있었다.

나뭇잎을 아플리케로 구두에 장식하거나 꽃잎을 장식하여 자연적이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나타냈다. 기하학적 장식에서 구두의 포스트 모던성으로 브래지어 끈<Fig. 11>을 구두의 백 스트랩 끈으로 사용하거나 스포티한 개념들에 주로 사용되는 둥근 스트링을 샌들의 끈으로 사용하여 장르의 혼합적인 개념의 장식들도 보여주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의상의 전체적인 조화를 위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구두의 조형적 요소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구두에 대한 기초지식을 함양시키고 구두의 조형적 특성을 살펴 구두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두의 기초지식 함량을 위해 구두의 구조와 제법 그리고 기원과 변천사를 알아보았고 구두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을 위해 구두의 조형요소를 형태, 소재,

장식으로 분류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두 구조는 초기에 한 장의 발싸개 형태에서 로마시대에 처음으로 창과 구두 윗부분인 제갑이 분리되기 시작하였고 16세기부터 굽이 개발되어 제갑과 창, 굽의 구조가 된다. 구두의 제법은 19세기까지 실을 이용하여 손으로 직접 제작하였는데 1926년 접착제를 사용한 시멘트 제법이 개발되어 현재의 주요한 구두 제작 방법이 되었다.

둘째, 구두의 기원은 한 장의 발싸개 형과 샌들로 고대에는 샌들을 주종으로 발달하고 중세는 종교적인 영향으로 샌들보다는 발의 노출이 적은 구두 형태가 발달되었다. 14세기에는 구두 앞 코 길이가 남성들의 부의 척도가 되기도 한 뿔뿔이 출현했고 15세기에는 굽이 평장이 높은 여성전용 구두인 쇼핀이 나타났다. 16세기에는 앞이 굉장히 넓은 덕코빌 구두도 나타났다. 17세기에는 앞장식으로 버클과 로제트가 사용되어 구두가 더욱 화려해졌고 본격적으로 남녀 구두가 구별되기 시작한다. 18세기는 굽이 더욱더 높고 곡선적으로 되었고 19세기는 낮은 굽의 발레리나 구두가 나타났다. 20세기에는 Andre Perugia의 초현실주의 구두와 T-스트랩 구두, Salvatore Ferragamo의 플랫폼 구두, Roger Vivier의 뉴 룩을 위한 뾰족한 코의 하이힐 구두, Herbert Levine의 스페이스 룩을 위해 플라스틱 구두, Manolo Blahnik의 우아한 펌프스와 샌들 등 구두 디자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셋째, 1990년대 여성구두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형태는 과거시대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구성한 복고 형태의 재현 구두와 남성 구두의 형태를 그대로 여성구두로 표현한 남녀 혼성적인 이미지의 구두, 동서양의 이미지를 혼합한 이중적 이미지의 구두들이 나타났다. 또한 해체주의에 입각해 탈중심, 탈구조의 개념이 구두에 도입되어 나타났다.

소재는 일반가죽보다 뱀, 도마뱀, 악어가죽 등이 많이 사용되어 질감이 강화되었으며 천 소재의 활용으로 인공적인 미를 추구하기보다는 인간 본연의 인본주의적인 자연미가 부각되었으며 인간 피부를 모방한 유연하고 부드러운 합성소재의 활용으로 현대 과학의 리얼리티를 환상적으로 보여주었다. 장식은 신선한 신소재의 증가와 과감한 색의 활용으로 기능적인 장식 외에 순수 장식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장식은 배제되었으나 브래지어 끈을 구두의 백 스트

랩 끈으로 사용하거나 스포츠화에 주로 쓰는 등근 끈을 구두에 사용하는 등 과감한 장식들도 나타났다.

1990년대 여성구두는 단순히 의상의 부속품적인 개념을 탈피하여 형태의 창의적인 표현과 타 장르로서의 구두개념의 확장 등으로 구두 이미지의 재창조를 위한 구두인식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구두의 조형적 특성을 좀더 세분화하여 시대별 상호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의상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유행변화에 따른 구두 조형요소의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장선애(1976). 한국근대 여자 양화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구인숙(1980). 고대서양신발에 관한연구. 충남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학술지, 7(2).
- 3) 김선화(1986). 서양복식에 나타난 신의 역사적인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최유화(1991). 서양신발의 유형별 발달과정에 관한 고찰.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김현희(1986). 여성용 구두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여혜린(1994). 성인여자구두 적합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Grew, F. and Neergaard, M. (2001). Shoes and Pattens, London: Museum of London, pp.46-47.
- 8) Rossi, W.A. (2000). The Complete Footwear Dictionary, Florida: Krieger Publishing Com, pp.155-156.
- 9) Boucher, F. (1999). 20.000 years of Fashion: The History of Costume and Personal Adornment, New York: Harry N. Abrams, INC, p.28.
- 10) Rossi, W.A. '앞의 책', p.113.
- 11) Bata Shoes Museum (1994). All about Shoes, Toronto: Bata limited, p.6.
- 12) 近藤四郎(1992). "靴の人類學", 「靴」, 東京: INAX Ltd, p.13.
- Wilcox, R.T. (1958). The Mode in Costume,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p.2.
- 13) Bill, S. (1964). If the Shoe Fits, New York: David McKay, p.52.
- 14) Rossi, W.A. '앞의 책', p.137.
- 15) Wilcox, R.T. (1958). The Mode in Costume,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 p.199.
- 16) 구두 위의 띠 모양이 T자인 것
- 17) 구두 위의 띠가 발등으로 지나간 것
- 18) 7 cm이상 되는 굽 끝이 뾰족한 굽
- 19) Dowell, C.M. (1998). Shoes- Fashion and fantasy, London: Thames and Hudson, p.112.
- 20) 남화제감의 앞을 가르는 선
- 21) Read, H. (1974). The Meaning of Art, London: Faber & faber, pp.179-185.